

제 2외국어 학습에서 스페인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정원석
경희대학교

정원석(2021), 제 2외국어 학습에서 스페인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이해와 활용,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2(2), 1-31.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 2외국어 스페인어 수강생들을 위한 생략현상에 대한 소개 및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 국내 대학의 제 2외국어 교육현장에서는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또는 생략구문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스페인어의 생략현상과 관련된 교육학적 관점의 선행연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자연언어의 주요 특성들 중 하나인 생략현상에 대한 이해는 여타 문법적·구문적 특성에 관한 학습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구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올바른 구문의 작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적어도 대학 수준의 전공교육 과정에서만큼은 제 2외국어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효과적인 교수 및 학습방안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표본을 분석하여 제 2외국어로서 스페인어 학습에서 생략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실제 작문 시 활용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핵심어 생략현상, 제 2외국어 학습,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85790).

† 본고의 내용 및 전개 과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익한 논평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I. 들어가며

생략현상이란 자연언어(natural language)가 가진 여러 보편적 특성들 중 하나로써 주어진 문맥이나 담화과정을 통해 청자가 의미를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화자가 음성적으로 실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화자는 언어 표현의 잉여적인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최소의 노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언어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활한 의사소통의 실현을 위해서는 발화된 언어 표현에 포함된 생략의 내용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로소 언어 표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지만 청자는 생략된 내용을 적절히 복원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모호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언어들마다 어떤 식으로든 생략현상이 존재하지만 각 언어의 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략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생략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으로 생성문법의 방법론을 수용한 연구자들은 각 언어들마다 달리 적용되는 생략의 범위를 범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언어의 심층구조와 생략(현상)의 본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cf. Lasnik & Funakoshi 2018).

먼저 영어의 경우 생략현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현재까지 다양한 관점 하에 수행되었으며(cf. Ross 1967, Sag 1976, McCawley 1988, Lobeck 1995, Johnson 2001, Merchant 2001, Culicover & Jackendoff 2005),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영어 전공자들을 위한 교육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생략현상의 전반적인 소개 및 이에 대한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cf. 김기영 2001, 김희자 2003, 안근영 2011).

한편,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cf. Brucart 1987, Zagona 1988, Saab 2004, 2009, Gallego 2011, 2016, Brucart &

McDonald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영어의 생략현상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국내 연구 현황과는 달리, 국내 대학의 전공교육과정에서 제 2외국어(L2)로서 스페인어 학습에는 생략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생략구문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의 선행연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한 개별언어에서 발생하는 생략현상에 대한 교수가 L2 학습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연언어가 가진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생략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여타 문법적·구문적 특성들에 대한 학습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구문의 작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적어도 대학 수준의 전공교육과정에서만큼은 L2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에 대한 교수 및 학습, 그리고 생략구문 관련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모국어(L1)로 사용하는 L2 스페인어 수강생들에게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는 소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생략현상에 대한 이해와 실제 생략이 적용되는 학습 환경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테스트를 통해 명사구 생략, 공백화, 그리고 최소공백화의 활용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통해 L2 스페인어 학습에서의 생략현상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L2 스페인어의 명사구 생략과 이에 대응되는 L1 한국어의 표현과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생략에 포함된 보편적 일반원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L2 학습에서 적절히 교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DP-구조상 D에 위치하는 한정사의 유무 또는 한정사의 종류에 따라 두 언어 간에 발생하는 명사구 생략 가능성의 차이에 대한 학습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제 1외국어로 오랫동안 학습해 온 영어에서 허용되는 DP-구조 하의 명사구 생략에 대한 선행지식이 L2 스페인어의 명사구 생략에 대한 이해와 적

용에 있어 간섭효과(interference effect)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경우 영어의 간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L2 스페인어에서 널리 관찰되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생략구문인 공백화와 최소공백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구문들의 기본적인 실현 방식과 상호 비교를 토대로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생략구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L1 한국어 및 한국에서 제 1외국어로 간주되는 영어의 대응되는 표현들과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L2 스페인어에서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생략구문들에 적용되는 원리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영어에서 동사를 포함한 생략구문들에 대한 학습이 L2 스페인어의 대응되는 구문들에 대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생략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L2 학습에서 교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스페인어의 주요 생략현상에 대한 소개와 현재 국내 대학의 L2 스페인어 교육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 현황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다. III장은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과정에서 스페인어의 주요 생략현상에 대한 한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도 및 실제 작문 시 적용에 대해 분석한다. IV장은 III장의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V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II. 스페인어의 생략현상 및 관련 학습 현황

여타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에는 다양한 유형의 생략현상이 존재한다.¹⁾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겠지만 현상에 대한 개괄의 목적에서 본다면 크게 명사가 포함된 생략(nominal ellipsis)과 동사가 포함된 생략(verbal ellipsis)으로 나눌 수가 있다.²⁾

1) 스페인어에서 관찰되는 생략현상에 관한 개괄은 Gallego(2011)와 Brucart & McDonald(2012)를 참조.

2)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동사가 포함된 모든 생략현상을 verbal ellipsis로 지칭하기로

- (1) 명사가 포함된 생략
 - a. 영주어(null subjects)
_____ hablas español.
(cf. *(you) speak Spanish)
 - b. 명사구 생략(NP-ellipsis)
Ese libro es más caro que este _____.
(cf. That book is more expensive than this (one)).

- (2) 동사가 포함된 생략
 - a. 공백화(gapping)
Juan compró un libro y María _____ una revista.
(cf. John bought a book and Mary a book)
 - b. 최소공백화(stripping)
Juan compró un libro, pero María no _____.
(cf. John bought a book, but not Mary)
 - c. 수문(slueicing)
Juan compró algo, pero no sé qué _____.
(cf. John bought something, but I don't know what)

우선 명사와 관련된 생략을 살펴보면, (1a)에 예시된 영주어 현상은 로망스어에 속한 스페인어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로망스어계인 프랑스어 및 영어와는 명확히 대조되는 측면으로서 스페인어에서는 정형동사(finite verb)의 풍부한 굴절(rich inflection)을 통해 인칭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어를 생략한 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³⁾

하지만 실제로 (2)의 모든 예문들은 절 단위(clause-level)의 생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는 동사구 생략(VP-ellipsis)과 유사 공백화(pseudogapping)를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 및 논의 역시 배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하 논문에 제시된 모든 예문들에서 밑줄(____)친 부분은 실제 생략부(ellipsis site)를 이룬 중립적으로 표상하기로 한다.

- 3) 인칭에 따른 동사의 굴절이 풍부한 언어는 영주어를 허용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영주어의 출현은 가능하지만 동사의 굴절은 빈약한 한국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주어 현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는 많은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제 1외국어로 간주되는 영어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초급부터 중급이상까지 다양한 학습 단계에서 주어의 불필요한 사용이

한편, (1b)의 명사구 생략은 관사 체계를 가진 대부분의 언어들에서 널리 관찰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성문법의 이론적 틀 하에서 한정사구(Determiner Phrase)의 핵인 D에 위치한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에 의해 명사구의 생략이 인허되는 것으로 널리 분석되고 있다.⁴⁾ 아래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는 정관사, 지시사, 수사, 양화사 등 다양한 종류의 한정사에 의해 인허된 명사구 생략의 사례들이 존재한다.⁵⁾

- (3) a. El libro de Juan y el ____ de María.
 ‘The book of John and the one of Mary’
 b. Este libro de historia y ese ____ de matemática.
 ‘This book of history and that of mathematics’
 c. Dos hermanos de Juan y tres ____ de María.
 ‘Two brothers of John and three of Mary’
 d. Juan tiene muchos amigos, pero yo tengo pocos ____.
 ‘John has many friends, but I have few’

구어 및 문어에서 빈번하게 관찰된다. 흥미롭게도 연구자의 교육 경험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한국어 역시 영주어가 가능하지만 L2 스페인어 학습에서는 오히려 L1인 한국어보다는 제 1외국어인 영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는 Bardel & Falk(2007)에서 제안한 L2 전이의 일례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잘 알려져 있듯이, 스페인어에서 주어의 명시적 출현은 적어도 구어에서는 주어 간의 대조 또는 강조 등의 문맥에 국한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cf. Fernández-Soriano 1989).

- 4) 본문에서는 별도의 논의 없이 Abney(1987)의 한정사구 가설(DP-Hypothesis)을 전제로 한다. 한편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과 같은 분류사 언어들(classifier languages)의 경우에도 특정한 문맥 하에서는 명사구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cf. Saito *et al.* 2008, Watanabe 2010, Park 2021).
- 5) 엄밀히 말하면, (3a)에 대응되는 영어 예문은 비문이며 그 대신 예문 아래 제시한 주석과 같이 대응사 one을 이용한 생략구문만이 존재할 뿐이다(cf. Llobart-Huesca 2002). 이와 같은 언어 간의 대조는 이론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는 스페인어와 달리 명사구 생략에서 외현적(explicit) 성 표지(gender marker)가 한정사에 드러나지 않는다(cf. Saab 2019). 즉, 영어의 경우 관사를 위치한 모든 한정사들은 성 표지가 내현적(implicit)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명사의) 성에 따른 한정사의 형태가 외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스페인어와는 다른 점이다. 명사구 생략과 관련하여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과소생성(underproduction)에 대한 논의는 III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한편, 동사가 포함된 생략현상들 중 (2c)에 예시된 수문의 경우 비록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스페인어에서 널리 관찰되는 생략구문으로서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문의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현적인 의문사구 이동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생략구조이며 오직 의문사구만 남기고 나머지 문장 전체가 생략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f. Merchant 2001). 따라서 이러한 생략구문은 영어와 스페인어처럼 의문사 의문문에서 의문사구가 문두로 이동하는 언어들에서만 가능한 형태이며, 한국어에는 이와 유사한 구문만이 있을 뿐 정확히 일대일 대응되는 형태의 생략구문은 존재하지 않는다(cf. Merchant & Simpson 2012). 이하 본문에서는 (2c)와 같은 절 생략구문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오직 본 연구에 포함된 (2a-b)의 공백화와 최소공백화 구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2a)에 예시된 공백화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구성성분들 간의 적절한 대조관계만 성립하면 언어의 경제성 실현을 위해 잉여적 표현을 최대한 피한다는 측면에서 후행절의 동사를 실현하지 않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여타 언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에서 공백화는 구어 및 문어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생략현상이며, 아래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등위접속구조에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사어절에서는 출현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제약은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cf. Ross 1967).

- (4) a. Juan compró un libro y/pero María ____ una revista.
 a'. John bought a book and/but Mary ____ a book.
 b. *Juan compró un libro cuando María ____ una revista.
 b'. *John bought a book when Mary ____ a book.
 c. *Juan compró un libro porque María ____ una revista.
 c'. *John bought a book because Mary ____ a book.
 d. *Juan compró un libro después de que María ____ una revista.
 d'. *John bought a book after Mary ____ a book.

마지막으로, (2b)의 최소공백화는 오직 하나의 구성성분만을 남긴 채 문장의 다른 구성성분들이 생략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 본 공백화와는 차이가 있

지만 모두 등위접속구조하에서만 생략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구문으로 취급되고 있다(cf. van Craenenbroeck & Merchant 2013). 또한, 스페인어의 최소공백화는 문장 부정어(sentential negation) *no*를 동반한 경우 외에도 아래 (5)와 같이 긍정 강조어(intensifier) *sí* 또는 부사 *también/tampoco*를 통해서도 인허될 수 있다.⁶⁾

- (5) a. Juan no compró los libros, pero yo sí ____.
 ‘John didn’t buy the books, but I did’
 b. Juan compró el libro, y yo también ____.
 ‘John bought a book, and me too’
 c. Juan no compró el libro, y yo tampoco ____.
 ‘John didn’t buy the book, and me neither’

하지만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에서 최소공백화는 등위접속구조에서만 아니라 *aunque*, *mientras que*로 도입되는 양보절에도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보절에서의 최소공백화는 문법성 또는 수용성에 관해 별다른 차이 없이 주절의 앞과 뒤에 모두 허용될 수 있다.⁷⁾

- (6) a. Yo pienso hablar con él, aunque Juan no ____.
 ‘I will talk to him, though John will not’

6) (5a)의 예문에 포함된 *sí*에 문자 그대로 대응되는 표현을 *yes*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예문에서 *yes*가 포함된 최소공백화의 형태로 구성하기는 어렵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아래 (ia)의 영어 예문은 (5a)가 아닌 (ib)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 (i) a. John didn’t buy the books, but (?yes) I did.
 b. Juan no compró los libros, pero yo sí los compré.

한편, (5b-c)의 긍정 동의를 표현으로 출현한 *yo también*과 이에 대응되는 영어의 *me too*의 비교 및 대조에 관해서는 심상완(2013)을 참조.

7) (6-7)의 스페인어 예문들에 대응되는 그 아래 영어 예문들은 비교 및 대조의 목적으로 연구자가 추가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해당 영어 예문들은 전부 동사구 생략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영어의 최소공백화는 양보절에 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스페인어에서는 시제구(TP) 상위에 문장 부정어 *no*가 생성된다는 Laka(1990)의 제안을 고려하면 (6-7)의 예문들을 동사구 생략의 일례로 분석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 b. Juan estudiaba mucho, mientras que tú no ____.
 ‘John studied a lot, while you didn’t’
- c. María tiene razon, aunque Antonio cree que no ____.
 ‘Mary is right, though Anthony believes that she isn’t’
 (Brucart 1999:2985-2826)

- (7) a. Aunque Juan no ____, Pedro estudiaba la lingüística.
 ‘Although John didn’t, Peter studied linguistics’
- b. Jesus dice que no ____, pero creo que al final volverá a Barcelona.
 ‘Jesus says that he will not, but I think that he will go back to Barcelona in the end’
- c. Luis dice que no ____, pero yo sé que habla inglés con bastante fluidez.
 ‘Luis says that he doesn’t, but I know that he speaks English quite fluently’
 (Brucart 1999:2822-2823)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1a-b)와 (2a-b)의 생략현상들과 관련하여 국내 L2 스페인어에서의 학습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스페인어 교재 및 참고서적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직 일부 교재에서만 (1a)와 같은 영주어 현상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 (1b)와 같은 명사구 생략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학습에 적용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⁸⁾ 마찬가지로, (2a-b)와 같은 동사가 포함된 생략현상에 대한 소개 및 학습 또한 국내 대학의 스페인어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혹자는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굳이 생략현상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생략현상이 다른 스페인어의 주요 문법 사항들에 대한 학습과 동등한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지라도, 적

8) 연구자가 아는 바로는 국내 일부 대학의 중급 이상 레벨의 전공교과목에서는 스페인어의 영주어 현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강의계획에 포함된 실제 학습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그 외 다른 생략구문들에 대한 소개 또는 학습 역시 전무하다.

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는 보다 풍부한 문법적·구문적 지식에 대한 학습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중요도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략현상은 자연언어가 가진 주요 특징들 중 하나로 간주되는 만큼 개별언어 스페인어에서 가능한 생략구문들에 대한 이해와 일정 수준까지의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구어뿐만 아니라 문어에서도 언어 표현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생략의 활용

1.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L2 스페인어 수강생들에게 L1 한국어의 문법적·구문적 요소들이 L2의 생략현상에 관한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L2 스페인어에서 허용되는 생략구문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표본을 L2 스페인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의 참가 대상자들은 남·여 구분 없이 L2 스페인어에 대한 학습 기간(learning period)과 학습 정도(degree of learning)에 따라 선정 및 분류하여 유럽공통참조기준의 B1-B2에 해당되는 스페인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유럽공통참조기준의 레벨 중 A1-A2와 C1 이상의 학습자들은 각각 L2 스페인어 학습 기간의 부족과 생략현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능성을 이유로 실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실험의 참여자들은 전부 B1-B2 레벨의 전공 교과목 수강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A1-A2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표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설문에 포함된 표본의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대조 및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과에 모국어 전이(L1 transfer)로 인해 한국어의 문법적·구문적 요소들이 L2 스페인어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스페인어 수강생들이 제 1외국어로 학습해 온 영어에서 관찰되

는 생략현상에 대한 사전 지식(prior knowledge) 또는 선행학습의 유무에 따라 L2 스페인어의 생략구문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서 간섭효과를 보이는지도 살펴보았다.

2. 실험 진행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은 총 2회에 걸쳐 각각 다른 한국어-스페인어 작문에 대한 표본 1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1차와 2차 설문은 약 1개월 간격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문항들에 대한 작문에 할애된 총소요시간은 50분 이내로 제한하였다. 아래는 1차 설문 조사에 제시된 표본 문항 중 일부이며, 각 문항은 특정 생략구문에 대한 소개 또는 생략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사전 정보나 조건 없이 실험 참가자들에 제공되었다.

- (8) 주어진 한국어 표현을 스페인어로 작문하세요.
- a. 스페인어학과 학생들과 프랑스어학과 학생들
 - b. Juan은 시를 읽는 것을 좋아하고, María는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 c. Juan은 오늘 수업에 왔지만, María는 오지 않았어.

그리고 총 6회(9시간)의 생략현상과 관련된 학습을 진행한 후 실시한 2차 설문 조사 역시 1차 설문과 동일한 난이도와 유형의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 (9) 주어진 한국어 표현을 스페인어로 작문하세요.
- a. Juan의 삼촌들과 Maria의 삼촌은 친구 사이이다.
 - b. Juan은 맥주 한 병을 마셨고, Maria는 와인 한 잔을 마셨다.
 - c. Juan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María는 좋아해.

한편, 스페인어의 생략구문들에 대한 선행 학습이 전무한 실험 참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B1과 B2 레벨 차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생략구문의 활용 여부 정도만을 파악하는 본 설문의 취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⁹⁾ 또한, 각 표본으로 제시된

문항의 작문에서 가장 적절한 어휘 선택 등과 관련된 부분 역시 본 연구의 목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1-2차 표본에 대한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주목적인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생략현상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 관련하여 오직 표본 문항들에 II장에서 살펴 본 명사 또는 동사가 포함된 생략구문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만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생략구문의 활용에 관한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표본을 통한 설문 조사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¹⁰⁾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1차 실험 참여자 34명과 2차 실험 참여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총 2회의 설문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다(아래 (a)-예문들은 1차 설문, 그리고 (b)-예문들은 2차 설문에 포함된 표본의 일부임).

(10) 명사구 생략 활용

a. Los estudiantes del departamento de español y los de _____
departamento de francés.

<12/34명>

b. Los tíos de Juan y los _____ de María son amigos.

<24/28명>

- 9) 조금 더 부연하자면, 설문 참여자들 간의 스페인어 레벨 차이는 아주 미미하였다. 1차 설문문에 포함된 관련자격증 취득 여부에서는 오직 34명 중 4명(약 11%)만이 DELE B2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설문 참여자들 간의 존재할 수 있는 스페인어 B1과 B2 레벨의 차이는 1차 설문의 결과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10) 익명의 심사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성별, 나이 등이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자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 교육과정의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특정 구문 또는 문법적 요소에 대한 이해도에서 특정 성별이 유의미한 정도로 우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생략의 활용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학습 유무에 따른 변수를 제외하면 표본 조사 참여자들의 나이 역시 전부 20대 초중반으로 다른 연령대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진행한 실험의 유의미한 변수로 고려하지 않는다.

(11) 공백화 활용

- a. A Juan le gusta leer poesías y a María ____ novelas. <7/34명>
- b. Juan bebió una cerveza y María ____ una copa de vino. <26/28명>

(12) 최소공백화 활용

- a. Juan ha venido a la clase de hoy, pero María no _____. <16/34명>
- b. A Juan no le gusta estudiar, pero a María sí _____. <27/28명>

우선 의심의 여지없이 위 1차 표본 조사의 결과는 생략구문의 종류에 상관 없이 L2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실제 작문 과정에서 생략구문의 활용이 명사 구 생략의 경우 약 35%(cf. (10a)), 공백화의 경우 약 20%로 미미하거나(cf. (11a)) 최소공백화에서와 같이 약 47%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cf. (12a)).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연구 질문은 과연 위와 같은 결과가 생략현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학습의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제 작문에서 생략구문의 적용의 빈도가 낮은 것일 뿐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위 1차 설문 결과에 앞서 II장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대학의 L2 스페인어 교육 현장에서 생략현상에 관한 학습이 거의 전무한 사실과 연관 지어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단순히 학습 내용의 실제 적용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L2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에 대한 소개 및 어느 정도의 학습 이후 설문 평가에서는 생략구문이 활용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2차 표본 조사에서는 (10b), (11b), 그리고 (12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 참여자들 대부분 생략을 포함한 문장을 구성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¹¹⁾ 비록 설문

11) 본고에는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2차 설문 포함된 나머지 7개 문항의 결과도

제시된 표본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한 생략구문의 활용도 향상의 결과는 L2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에 대한 적절한 학습과 이해를 통해 실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구문에 따른 적절한 생략의 적용을 위해서는 L2 스페인어의 생략현상 대해 좀 더 세부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아래 (13-14)에서 보듯이, 명사의 굴절(nominal inflection)이 풍부한 스페인어에서 적절한(well-formed) 명사구 생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의 문법적 성(gender)은 수(number)와는 달리 반드시 일치해야만 한다(cf. Leonetti 1999, Depiante & Masullo 2001, Kornfeld & Saab 2004, Saab 2004, 2008, 2010, Eguren 2010).¹²⁾

- (13) a. El tío de Juan y los (tíos) de María.
- b. Los tíos de Juan y el (tío) de María.

- (14) a. El tío de Juan y la *(tía) de María.
- b. Los estudiantes de física y las *(estudiantes) de química.

즉, 단순히 동일한 명사인지를 확인만으로는 (14)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스페인어의 명사구 생략은 한정사에 의해 동일한 명사인 경우 생략이 허용된다는 식의 교수는 (14)에서와 같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제공할

마찬가지였다. 즉, 1차 설문에서는 생략의 활용이 모두 저조하였지만 2차 설문에서는 각 문항에서 가능한 생략을 활용한 문장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12) Saab(2019)는 (14a)와 같은 예문의 비문법성을 생략을 위한 동일성 조건에서 명사가 가진 고유한 자질(inherent feature)인 성은 선행사구와 생략구의 명사들 간에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14b)와 같이 남성·여성 동형 명사(homogeneous noun)에는 적용되기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동형 명사의 고유한 자질로서의 성은 남성·여성의 구분은 (14a)에서와는 달리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명사에 포함된 형태적인 성은 명사가 가진 고유한 성자질의 실현형으로 간주한다면 (14b)의 비문법성을 형태적인 성 불일치(gender mismatches)와 연관 짓기 어렵다. 오히려 연구자의 견해로는 스페인어의 명사구 생략에서는 한정사의 성 일치(gender matches)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본 연구의 1차 설문에서는 명사구 생략을 활용한 실험 참여자들(cf. (10a)) 중 오직 일부만이 아래 (15a)와 같은 표본 문항에서 명사구 생략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작문하였다.

- (15) a. 여자 축구선수 두 명과 남자 축구선수 세 명.
- b. Las dos futbolistas y los tres *(futbolistas).

<6/34명>

이와 같은 결과는 스페인어에서 적절한 명사구 생략을 위해서는 앞서 (14)에서 확인했듯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한정사 간의 성일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선행학습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0a)와 같은 명사구 생략의 기본 문형뿐만 아니라 (13-14)의 성수에 따른 명사구 생략 가능성에 대한 학습 역시 작문 시 적절한 생략구문의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앞서 (10)에서 생략구문의 활용이 향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1차 설문 이후 실시한 관련 내용의 학습 이후 2차 설문에서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선행사구의 한정사와 생략구의 한정사가 문법적 성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명사구 생략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작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 (16) a. 여자 교수님 한 명과 남자 교수님 두 명이 회의에 오셨다.
- b. Una profesora y dos *(profesores) han venido a la reunión.

<25/28명>

한편, 1-2차 설문 결과에서 동사의 생략이 포함된 (11-12)의 공백화와 최소 공백화의 활용에 있어 주목을 끄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차 설문의 참여자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백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실제 공백화를 표본 문항에 적용한 사례도 아주 적었다(cf. (11a)).

13) 이는 오직 기술적(descriptive)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일 뿐이며 이론적 관점에서의 설명은 명사구 생략의 인허와 관련된 구조적인 이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 이후 실시한 2차 설문에서는 약 89% 이상의 참여자들이 공백화를 수월하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cf. (11b)). 이러한 개선 효과는 단순히 학습 내용의 반사적 적용의 사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적형한 공백화가 한국어-스페인어 작문에 활용된 결과 그 자체는 1차 설문에 비해 2차 설문에서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2)의 최소공백화의 경우 흥미롭게도 명사구 생략과 공백화에 비해 1차 설문에서 참여자들의 활용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뜻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생략현상에 대한 학습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의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연한 결과로는 보이지 않으며, 부정어 *no* 또는 긍정 강조어 *sí*를 이용한 생략의 사례는 기존 학습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표현, 즉 긍정/부정 동의를 나타내는 부사 *también/tampoco*를 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위와 관련하여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적어도 국내 대학에서 L1 한국어-L2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유럽공통기준 A1-A2 레벨에서부터 이미 *yo también/yo tampoco*와 같은 표현뿐만 아니라 *yo no/yo sí*와 같은 표현들 역시 (초급 A1-A2 회화 등의 교과목을 통해) 구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학습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⁴⁾ 만약 이와 같은 추론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12a)에 나타난 결과는 (10a)와 (11a)의 결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yo también/yo tampoco*의 문형을 통해 *yo no/yo sí*가 포함된 최소공백화를 적용한 것으로 기존의 유사구문에 대한 학습에 따른 생략의 활용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명사구 생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특히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공백화와 최소공백화를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구문적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 (16a-b)의 대조를 통해

14)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 대학에서 사용 중인 모든 초급 레벨(A1-A2)의 스페인어 회화 또는 문법 교재에는 긍정/부정 동의를 표현으로 제시된 *yo también/yo tampoco*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L2 스페인어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이와 같은 표현을 학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알 수 있듯이, 스페인어의 공백화는 최소공백화와 달리 양보절 내부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cf. Brucart 1987, 1999).

- (17) a. Juan compró un libro, aunque María *(compró) una revista.
- b. Juan compró ese libro, aunque María no (compró ese libro).

또한, 공백화와 달리 최소공백화는 주절을 선행하는 양보절에 포함될 수도 있다.¹⁵⁾

- (18) a. Juan *(compró) un libro, aunque María compró una revista.
- b. Aunque Juan no (compró ese libro), María compró ese libro.

이는 스페인어의 최소공백화가 공백화와는 조금 다른 구문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분포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영어의 동사구생략의 분포와 일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비록 이와 관련하여 1-2차 설문의 표본을 통해 실제 평가로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16) 및 (17)의 대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적절한 교수와 학습은 생략현상을 적용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IV.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이 장에서는 III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한국어 및 국내 중·고등교육에서부터 제 1외국어로 오랫동안 학습해 온 영어의 구문적 특성들로 인한 간섭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2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국어 전이를 통해 L1의 다양한 문법적 요소들이 L2의 문법 및 구문의 습득에 있어

15) 한편, 영어의 경우 최소공백화는 (al)though로 도입되는 양보절 내부에는 출현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영어와 스페인어 간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cf. White 1990, 2000, 2003, Laufer & Eliasson 1993, Schwartz 1998, Schwartz & Sprouse 1996, Flynn *et al.* 1998, Sprouse 2006). 또한, 이중 언어(bilingual) 사용자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이중 언어 중 L1에 해당되는 언어가 L2에 해당되는 언어의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었다(cf. Vigliocco *et al.* 1996, Nicol & Greth 2003).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어권의 사례를 들어보면,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이중 언어 화자들 중 L1이 바스크어(Basque)인 ‘바스크어-스페인어’ 이중 언어 화자들은 L2 스페인어의 문장처리(sentence processing)에서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 또는 이들의 목적대명사 형태를 생략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cf. Landa 1995, Franco & Landa 1996, Larrañaga & Guijarro-Fuentes 2012, Meisel 2013, Mayo & Slabakova 2015). 이와 같은 결과는 L1 바스크어에서는 L2 스페인어와 달리 목적어 생략(object ellipsis)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바스크어-스페인어’ 이중 언어 화자들은 L2 스페인어의 통사 구조의 생산(production)에서 L1 바스크어가 가진 통사 체계에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f. Santesteban & Costa 2006). 예를 들면, L1 바스크어에서 흔히 관찰되는 무표적 OV 어순이 L2 스페인어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된다(cf. Irurtzun 2019). 예를 들면, 의문사 없는 의문문, 즉 yes/no의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문에서 ‘바스크어-스페인어’ 이중 언어 화자들은 ¿quieres postre?와 같은 VO 어순 대신 ¿postre quieres?와 같은 OV 어순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¹⁷⁾ 마지막으로, L1 영어 학습자들에서 관찰되는 L2 스페인

16) 흥미롭게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L1 한국어-L2 스페인어에서도 관찰된다. 즉,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한국인 화자들은 모국어에서 널리 허용되는 목적어 생략을 구어 및 문어에서 빈번하게 오류로 범한다. 한편, 바스크어는 한국어/일본어와 유사하게 영주어와 영목적어를 모두 허용하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바스크어는 조동사의 굴절형에 나타난 주어 일치(subject agreement)와 목적어 일치(object agreement)가 풍부한 언어이므로 영주어 및 영목적어 현상과 관련하여 동사의 굴절이 빈약한 한국어/일본어와 직접적 비교는 어려워 보인다.

17) ‘바스크어-스페인어’ 이중 언어 화자들이 OV 어순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스페인어에서 OV 어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바스크 지역 스페인어의 특징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타동사 구문에서 OV 어순과 관

어의 외현주어 사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 역시 L1이 가진 문법적·구문적 요소들이 L2의 습득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간주된다(cf. Pérez-Leroux & Glass 1999).

한편, 앞서 언급한 L1이 L2의 습득에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L2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cf. Cook 1985, Ellis 1985). 특히,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L2 습득에 관한 연구들은 Chomsky(1980)의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과 매개변인(parameters)이 L2 습득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지와 그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L1/L2 습득뿐만 아니라 L2 학습에서도 보편문법과 매개변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L1/L2 습득 및 L2 학습에 관한 여러 접근법들 중, 보편문법의 일반원리가 L1과 L2의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L1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편문법의 매개변인이 L2 습득과 L2 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cf. Cook 1985), L1 한국어 화자들의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생략구문에 대한 이해 및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생략구문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생략현상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다. 우선 앞서 III장에서 살펴 본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생략의 활용에 관한 1차 설문문의 결과는 L1 한국어의 생략현상과 관련된 문법적·구문적 요인들이 L2 스페인어 작문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명사구 생략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실험 참가자들의 L1 한국어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들과는 달리 관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명사구 생략이 인허될 수 없는 언어이며, 이에 따라 (8a)에 제시된 표본 문항에 대한 작문에서 생략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cf.

련하여 기존의 관찰된 자료들은 전부 의문문이며, 평서문에서도 접어의 출현을 동반하는 좌향접어외치(Clitic Left Dislocation)의 형태가 아닌 OV 어순이 ‘바스크어-스페인어’ 이중 언어 화자들에게 선호되는지가 흥미로운 주제이다. 왜냐하면 바스크어에서는 특히 3인칭의 경우 목적격 대명사 *bera* ‘it’의 사용이 재귀구문 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이며 그 대신 대부분의 문맥에서 목적어의 생략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 논의는 후일을 기약한다.

(10a)).¹⁸⁾ 이에 관해 연구자의 견해로는 설문 참여자들의 L1인 한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작문 시 L2 스페인어의 구문 형성에서 어느 정도 간섭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1차 설문의 결과에서 명사구 생략의 활용도가 미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L1의 간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살펴봤듯이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2차 설문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L2 학습에 있어 L1의 간섭효과는 L1 한국어-L2 영어 학습자들에서도 얼마든지 관찰될 수 있는 결과이다. 예를 들면, L2 영어를 전공하는 한국어 화자들은 L1 한국어의 생략에 관여하는 문법적·구문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 인지한 채 L2 영어의 생략현상에 대해 학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2 생략구문의 생산과 처리에서 오류나 과소산출 또는 과잉산출을 야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L2 영어 학습자들에게 L1인 한국어에는 명사구 생략을 인허하는 구조핵(functional head)으로서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가 기본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명사구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L1 모국어에 대한 선행지식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2 영어의 명사구 생략을 이해하고 학습하게 되므로 명사구 생략에서 과소산출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L1 한국어 화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명사구 생략이 포함된 영어 구문의 해석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보이며, 또한 L2 영어 작문 시 L1 한국어에 의한 간섭효과로 인해 명사구의 생략이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관찰된다(cf. 김기영 2001, 김희자 2003, 안근영 2011). 물론 학자들에 따라 격 표지(Case marker)를 DP의 구조핵 D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생략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러한 한국어의 격 표지는 명사구 생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명사구 생략의 인허와 관련해서는 한국어의 격 표지가 스페인어의 (정)관사에 대응되는 기능

18) 한국어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와는 달리 명사구 생략이 불가능한 언어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수량 분류사를 동반한 경우 (DP-구조에서 D에 의해 인허되는) 명사구 생략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cf. Park 2021). 하지만 스페인어와 달리 한국어에서 지시사 등을 통한 명사구 생략은 불가능하다(cf. An 2012). 따라서 명사구 생략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핵으로 분석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다. 한편, Park(2021)의 최근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수량 분류사(numeral classifier)를 구조핵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류사를 통한 명사구 생략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가 옳다면, L2 스페인어 학습에서도 수사를 통한 명사구 생략이 다른 한정사를 통한 명사구 생략에 비해 활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정)관사가 부재한 L1 한국어의 영향으로 이들 한정사들에 비해 수사를 이용한 명사구 생략이 L2 스페인어 학습에 훨씬 더 쉽게 관찰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한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1차 설문에 포함된 (8b-c)의 한국어-스페인어 작문에서 공백화와 최소공백화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L1의 영향으로 인해 L2 학습에서 간접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공백화와 최소공백화의 적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8b)의 경우 후핵언어(head-final languages)인 L1 한국어에서 공백화는 오직 선행절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연관 지어 볼 때 설문 참여자들 중 단 한 명도 선행언어(head-initial language)인 L2 스페인어 작문에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앞서 확인했듯이 일부 후행절에 적합한 공백화를 적용한 사례만이 있었을 뿐이다(cf. (11a)).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적어도 (8b)의 경우 L1의 한국어의 구문적 제약이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동일한 구문의 생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의 참여자들에게는 Ross(1971)의 선행/후핵언어에 따른 공백화의 방향성(directionality of gapping)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습이 실제로 작문에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자가 아는 바로는 L2 습득 및 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L1의 문법적·구문적 요소들이 모두 예외 없이 L2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는 없다(cf. Selinker 1972). 따라서 L1의 공백화 방향성이 L2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대신 연구자는 위 언

급한 공백화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L1 한국어의 간섭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설문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국내에서 제 1외국어로서 학습한 영어의 문장 구조에서 공백화가 반드시 후행절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연관 지어 이를 L2 스페인어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은 추론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동일한 결과가 L1이 영어인 학습자들이 L2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공백화는 오직 후행절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¹⁹⁾

한편, (8c)의 경우를 살펴보면 L1 한국어에서는 후행절에 ‘-도 그리하다/그리하지 않다’ 등과 같은 동사구 대용사(VP-anaphora)의 도움 없이는 쉽게 부정 표현 또는 긍정 표현을 이용한 최소공백화 구문을 구성하기가 어렵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봤듯이 본 연구의 설문에서 적지 않은 참여자들이 부정어 *no* 또는 긍정 강조어 *sí*를 이용한 생략을 한국어-스페인어 작문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L1 한국어의 영향과는 무관하며, 그 대신 초급 A1-A2 레벨에서 기존에 학습한 *yo también/yo tampoco* 등과 같은 표현들을 기반으로 하여 생략구문을 작문에 응용한 사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점에 있어서 연구자는 심상완(2013)에서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yo también/yo tampoco*를 단순히 영어의 *me too/me neither*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절 단위의 생략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생략현상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추론을 통해 앞서 III장에서 왜 L2 스페인어에서 관찰되는 여러 생략현상들 중 최소공백화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은 명사구 생략과 공백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 이와 관련하여 L1이 스페인어 또는 영어인 화자들에게 L2 한국어 학습에서 후행절에 공백화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공백화의 방향성과 관련된 오류는 L1 스페인어/영어 화자들에게는 이전에 제 1외국어로서 후행언어에 대한 선행 학습 없이는 L2 한국어 작문에서 충분히 관찰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0) 한국어의 동사구 대용어의 본질에 관한 최근의 실험 연구는 Kim, Han & Moulton (2020)을 참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L1 한국어-L2 영어에서 관찰되는 생략의 과잉산출 및 과소산출은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III장에서 살펴 본 1차 설문의 결과를 통해(cf. (10-12)) L1 한국어 화자들이 L2 스페인어에서 충분히 가능한 생략구문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문 시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명사구 생략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생략을 포함하지 않은 과소산출의 결과로 이어졌다.²¹⁾

- (19) a. 스페인어학과 학생들과 프랑스어학과 학생들.
- b. Los estudiantes del departamento de español y los (estudiantes) del (departamento) de francés.

물론 이 부분에서 과소산출 자체가 문법성 문제를 야기해 L2 스페인어 작문에서 어떠한 비문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어민들이라면 (18b)과 같은 예문에서 명사구 생략을 포함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문장을 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연구자가 문의한 스페인 출신 원어민들은 (18b)와 같은 문장에서 단 한 명도 특정한 대조 또는 강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한 후행절에 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동일한 명사구가 반복되는 문맥에서 가능하면 명사구 생략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페인어의 영주어 사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주어의 경우에도 대조나 강조 등의 문맥을 제외하면 음성적으로 실현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차 설문의 결과에 앞서 진행한 동사를 포함한 생략구문인 공백화와 최소공백화의 적형에 관여하는 몇 가지 제약들에 대한 적절한 학습과정이 없었다면 한국어-스페인어 작문에서 생략구문의 과잉산출도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f. (13-15)). 예를 들면, 스페인어에서 공백화는 등위접속구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보다 정확한 과잉/과소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차 설문에 주어진 표본의 수가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의 실험 참여자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충분한 표본 자료의 구성 및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조에만 국한되고 부가어 구조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학습이 부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적형하지 않은 공백화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20) 내 동생은 내가 밥을 먹었을 때 빵을 먹었어.

- a. Mi hermano comió pan cuando yo *(comí) arroz.
- b. Cuando yo *(comí) arroz, mi hermano comió pan.

또한 L1 한국어 화자들 입장에서는 L2 스페인어에서 최소공백화는 주절을 선행 또는 후행하는 양보절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선행학습 없이는 최소공백화가 적용되지 않은 산출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²²⁾

(21) 비록 나는 빵을 먹지 않았지만 내 동생은 빵을 먹었어.

- a. Mi hermano comió pan, aunque yo no (comí pan).
- b. Aunque yo no (comí pan), mi hermano comió pan.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어-스페인어 작문에서 구문에 따라 적절한 생략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L1 한국어와 L2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에 대한 비교 및 대조를 통해 L1의 문법적·구문적 요인이 L2 학습에 간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L1 한국어에는 부재한 L2 스페인어의 구문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학습 역시 L2 작문 시 생략구문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2)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도 양보절 내부에서 최소공백화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며 또한 양보절은 주절을 후행할 수도 있어 보인다.

- (i) a. 비록 나는 아니었지만, 내 동생은 빵을 먹었어.
- b. 내 동생은 빵을 먹었어, 비록 나는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생략구문에 대한 분석과 스페인어의 대응 구문과의 비교 및 대조는 후일을 기약한다.

V. 나가며

이 논문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스페인어 수강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생략현상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및 교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고는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생략현상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L1 한국어 L2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생략현상에 대한 이해와 실제 작문 시 적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1차 설문의 결과에서는 생략구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L2 스페인어 작문에서 생략이 적용된 사례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일정 기간(6회 9시간) 수업을 통한 스페인어의 생략현상에 대한 설명과 연습문제를 통한 내용 점검 후 실시한 2차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들이 생략구문을 활용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생략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적절한 교수를 통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며, 생략구문에 대한 학습의 효과 역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략현상과 관련하여 모국어 전이 및 국내에서 제 1외국어로서 오랫동안 학습한 영어의 간섭효과 역시 L1 한국어 L2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생략현상과 관련하여 L1과 L2의 문법적·구문적 특징들에 대한 적절한 비교 및 대조를 통한 교수/학습으로 L1 또는 영어의 간섭효과를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L2 스페인어 수강생들의 생략구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제 한국어-스페인어 작문 시 생략구문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영(2001), 『영어 담화에서의 생략현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ellipsis in English discourse』, 인하대학교 대학원.
- 김희자(2003), 『영어의 생략구문 분석 및 지도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상완(2013), 『Me too vs. Yo también』,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4(1), 195-222.
- 안근영(2011), 『영어의 생략구문 분석과 지도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 Abney, Steven(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Cambridge, MA: MIT Dissertation.
- An, Duk-Ho(2012), “NP-ellipsis, its impostors, and minor argument pronominalization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37, pp. 345-356.
- Bardel, Camila and Falk, Ylva(2007). “The Role of the Second Languag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The Case of Germanic Syntax,” *Second Language Research*, Vol. 23, pp. 459-484.
- Brucart, Josep María(1987), *La elisión sintáctica en español*, Barcelona, Publicaciones de la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 Brucart, Josep María and Jonathan McDonald(2012), “Empty categories and ellipsis,” J. Hualde, A. Olarrea, and E. O’Rourke(eds.), *The Handbook of Hispanic Linguistics*, Malden (Mass.)/Oxford, Wiley-Blackwell, pp. 579-601.
- Chomsky, Noam(1980), *Rules and Represent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 Cook, Vivian(1985), “Chomsky’s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Vol. 6, No. 1, pp. 2-18.
- Culicover, Peter and Ray Jackendoff(2005), *Simpler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Craenenbroeck, Jerom and Jason Merchant(2013), “Ellipsis phenomena,” Marcel den Dikken(ed.), *The Cambridge Handbook of Generative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701-745.
- Depiante, Marcela and Pascual Masullo(2001), “Género y número en la elipsis nominal: consecuencias para la hipótesis lexicalista,” paper presented at *the I Encuentro de Gramática Generativa*, National University of Comahue, 22-24 November.
- Eguern, Luis(2010), “Contrastive Focus and Nominal Ellipsis in Spanish,”

- Lingua*, Vol. 120, No. 2, pp. 435-457.
- Ellis, Rod(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Fernández-Soriano, Olga(1989), “Strong pronouns in null-subject languages and the Avoid Pronoun Principl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1, pp. 228-239.
- Flynn, Suzanne, Gita Martohardjono, and Samuel Epstein(1998), “Universal Grammar: Hypothesis Space or Grammar Selection Procedures? Is UG affected by Critical Periods, Response to J. Hirschensohn,” *Behavior and Brain Science*, Vol. 19, No. 4, pp. 677-714.
- Franco, Jon and Arazne Landa(1996), “Two issues in null objects in Basque Spanish: Morphological decoding and grammatical permeability,” K. Zagona(ed.), *Grammatical Theory and Romance Languages*, John Benjamins: Amsterdam/Philadelphia, pp. 159-168.
- Gallego, Ángel(2011), *Sobre la elipsis*, Arco libros.
- Gallego, Ángel(2016), “La elipsis,” J. Gutiérrez-Rexach(ed.), *Enciclopedia de Lingüística Hispánica*, Londres: Routledge.
- Johnson, Kyle(2001), “What VP ellipsis can do, and what it can’t, but not why,” Mark Baltin and Chris Collins(eds.),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yntactic theory*, Oxford: Blackwell, pp. 439-479.
- Kim, Kyeong-Min, Han, Chung-hye, and Keir Moulton(2020), “The syntax of Korean VP anaphora: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Vol. 29, pp. 31-76.
- Kornfeld, Laura and Saab, Andrés(2004), “Nominal ellipsis and morphological structure in Spanish,” Bok-Bennema, R., Hollebrandse, R.B., Kampers-Manhe, B., and Sleeman, P.(eds.), *Romance Languages and Linguistic Theory 2002*, John Benjamins, Amsterdam, pp. 183-198.
- Laka, Itziar(1991), *Negation in Syntax: On the Nature of Functional Categories and Projections*,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Landa, Arazne(1995), *Conditions on null objects in Basque Spanish and their relation to léísmo and clitic doubl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Larrañaga, Peter and Pedro Guijarro-Fuentes(2012), “Clitics in L1 bilingual

- acquisition,” *First Language*, Vol. 32, No. 1-2, pp. 151-175.
- Lasnik, Howard and Kenshi Funakoshi(2018), “Ellipsis in transformational grammar,” J. van Craenenbroeck and T. Temmerman(eds.), *The Oxford Handbook of Ellipsis*, Oxford University Press, pp. 46-74.
- Laufer, Batia and Stig Eliasson(1993), “What causes avoidance in L2 learning? L1-L2 difference, L1-L2 similarity, or L2 complexity?,”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ol. 15, pp. 35-48.
- Leonetti, Manuel(1999), “El artículo,” Bosque, I., Demonte, V.(dir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Vol. 1, Espasa, Madrid, pp. 787-890.
- Llobart-Huesca, Amàlia(2002), “Anaphoric One and NP-Ellipsis,” *Studia Linguistica*, Vol. 56, No.1, pp. 59-89.
- Lobeck, Anne(1995), *Ellipsis: Functional heads, licensing, and identif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rurtzun, Aritz(2019), “Polarity questions with fronted foci in the Spanish of the Basque Country,” Gallego, A(eds.), *The Syntactic Variation of Spanish Dialects*, Oxford University Press, pp. 159-180.
- Mayo, María del Pilar García and Roumyana Slabakova(2015), “The L3 syntax-discourse interface,”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Vol. 18, No. 2, pp. 208-226.
- McCawley, James(1988), *The Syntactic Phenomena of English* (seco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isel, Jürgen M.(2013), “Develop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eter Jake Robinson(ed.), *The Routledge encyclopedia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NY: Routledge, pp. 165-173.
- Merchant, Jason(2001), *The syntax of silence: sluicing, islands, and the theory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rchant, Jason and Andrew Simpson(2012), *Sluicing: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icol, Janet and Delia Greth(2003), “Subject-verb agreement in Spanish as a second language,” *Experimental Psychology*, Vol. 50, pp. 196-203.
- Park, So-Young(2021), “NP-ellipsis and numeral classifiers in Korean,” *Linguistics*, Vol. 59, No. 3, pp. 635-681.
- Pérez-Leroux, Ana Teresa and Glass, Wiliam, R.(1999), “Null anaphora in Spanish

-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babilistic versus generative approaches,” *Second Language Research*, Vol. 15, pp. 220-249.
- Ross, John(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Saab, Andrés(2004), *El dominio de la elipsis nominal en español*, MA Thesis, Universidad Nacional del Comahue.
- Saab, Andrés(2009), *Hacia una teoría de la identidad parcial en la elip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uenos Aires.
- Saab, Andrés(2010), “(Im)possible deletions in the Spanish DP,” *Iberia*, Vol. 2, No. 2, pp. 45-83.
- Saab, Andrés(2019), “Nominal ellipsis,” Jeroen van Craenenbroeck and Tanja Temmerman(eds.), *The Oxford Handbook of Ellipsis*, Oxford University Press, pp. 526-561.
- Sag, Ivan(1976), *Deletion and Logical Form*,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Saito, Mamuro, T.-H. Jonah Lin, and Keiko Murasugi(2008), “N’-ellipsis and the structure of noun phrases in Chinese and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Vol. 17, No. 3, pp. 247-271.
- Santesteban, Mikel and Albert Costa(2006), “Does L1 syntax affect L2 processing? A study with highly proficient early bilinguals,” Beatriz Fernández and Itziar Laka(eds.), *Andolin gogoan.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Eguzkitza*, EHUKo argitalpen zerbitzua, Bilbao, pp. 817-834.
- Schwartz, Bonnie D.(1998), “The second language instinct,” *Lingua*, Vol. 106, pp. 133-160.
- Schwartz, Bonnie D. and Rex A. Sprouse(1996), “L2 cognitive states and the Full Transfer/Full Access model,” *Second Language Research*, Vol. 12, pp. 40-72.
- Selinker, Larry(1972), “Interlanguage,” *Product Inform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Vol. 10, pp. 209-241.
- Sprouse, Rex A.(2006), “Full Transfer and Relexificati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creole genesis,” C. Lefebvre, C. Jourdan and L. White (eds.), *L2 Acquisition and Creole Genesis: Dialogues*, Amsterdam: Benjamins, pp. 169-181.

- Vigliocco, Gabriella, Brian Butterworth, and Merrill F. Garrett(1996), "Subject-Verb agreement in Spanish and English: differences in the role of conceptual constraints," *Cognition*, Vol. 61, pp. 261-298.
- Watanabe, Akira(2010), "Notes on nominal ellipsis and the nature of no and classifiers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Vol. 19, No. 1, pp. 61-74.
- White, Lydia(1990),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ol. 12, pp. 121-133.
- White, Lydia(2000),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rom initial to final stat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inguistic theory*, pp. 130-155.
- White, Lydia(2003),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gona, Karen(1988), "Proper government of antecedentless VP in English and Span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6, pp. 95-128.

정원석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alex-7554@hotmail.com

논문투고일: 2021년 7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24일

Understanding of ellipsis phenomena and their applications in L2 Spanish learning

Jung Wonsuk

Kyung Hee University

Wonsuk, Jung(2021), "Understanding of ellipsis phenomena and their applications in L2 Spanish learning,"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3), 1-31.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at an introduction to ellipsis phenomena is needed for L1 Korean-L2 Spanish learners and to explore effective ways of teaching contents relevant to ellipsis. There has so far been no attempt to provide an overview of ellipsis phenomena nor a systematic teaching about ellipsis constructions in L2 Spanish learning, and thus little research from a pedagogical perspective has been carried out in this regard. Ellipsis is one of the main properties of natural language, and its proper understanding, like other grammatical and syntactic properties of the language, is equally important not only for good communication but also for precise interpretation and correct writing.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a certain extent to learn ellipsis phenomena in L2 Spanish, at least at the university level education courses, and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s are also needed in this regard. In this paper, I examine Korean-Spanish writing samples and discuss issues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ellipsis phenomena in L2 Spanish learning and their applications in writing.

Key words Ellipsis phenomena, L2 learning, Korean-Spanish writing